

David deSilva 박사 , 신약의 문화 세계 , 세션 2, 읽기 1 명예와 수치에 조율된 베드로

©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신약성서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읽기 1 명예와 수치에 조율된 베드로입니다.

문화적 맥락과 명예와 수치의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해당 문화 세계에서 나타나며 그 문화 세계가 형성한 상황을 다루는 텍스트인 신약성경을 읽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의 경우, 수신인의 부끄러움을 경험한 것이 본문 자체를 쓰게 된 일차적인 동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는 이것이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주요한 도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 가운데서 선하게 생활하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악행하는 자 같이 비방하나 너희의 선한 일을 지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상을 당했던 경험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후에, 사람이 하느님을 생각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고 부당하게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선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받거나 학대를 당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하느님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특권을 받았느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을 받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4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불명예스러운 행동의 홍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 즉 여러분의 이웃이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시험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불 같은 시련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기뻐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당신은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저자가 적어도 비그리스도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종들의 경우에 모욕과 비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기독교 복음과 그 실천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구타를 당하거나 신체적 모욕을 당합니다 . 외부인의 중상과 비난,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를 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이웃의 목표는 일탈적인 신념에 기초한 일탈적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수치심을 이용하여 일탈 통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여기서 일종의 사회적 통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비기독교인 이웃들이 개종자들,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개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 운동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상당히 정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로마의 평화가 무너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세주, 메시아,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올 진정한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이 안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현 세계 질서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성취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 평화, 로마 세계의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개종자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신을 두려워하는 선한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의 은총과 은사를 의지하고 있는 신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를 더 이상 바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신에 대한 모욕이 그들 가운데서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인들이 거의 모든 시민 모임, 사교 모임, 심지어 사적인 사교 행사나 저녁 식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운동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매우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시민 축제나 축제가 우상 숭배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 만찬에도 은혜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을 공경하거나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제의 형태로 땅에 포도주를 붓거나 잔치가 열리는 집에 있는 집주인의 사당에서 향을 바치는 것.

따라서 행동의 이러한 변화, 충성의 변화, 희망의 변화로 인해 기독교 개종자의 비기독교인 이웃은 아마도 당연하게도 이전 동료, 친구 및 동료의 새로운 행동에 놀라고 심지어는 나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동사를 이렇게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멀어졌습니다. 그리스어 단어 ksenizdontai 그들은 당신과 함께 포함되었던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당신의 새로운 행동에 대해 외부인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그들에게 가하는 수치심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시스템의 가치 있고 지지적인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위해 이웃이 요구한 관행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재화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의 경험을 이해하여 이러한 수치심의 경험이 그들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새로운 삶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비록 그들이 매우 예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의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후자의 선택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명예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수치심을 회피하고 그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째, 그는 외부인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개종자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닌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청중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이웃의 시도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그는 수치심과 거부의 경험을 그들의 상황에 대한 고귀한 반응으로 지속적인 저항과 인내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격리시킵니다. 저자는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명예의 기초에 대해 어느 정도 길게 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룹의 진정한 명예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앙을 반성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목회 전략인 수사학적 전략에 대한 한 방법으로, 우리는 먼저 저자가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을 명예의 법정에서 제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수치심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는 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청중들이 주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남아 있는 이전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개종자들은 동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거나 심지어 가증하다고 거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

자체가 이웃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따라서 명예로운 것과 명예롭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이웃의 능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종자의 이웃들은 그들 자신도 불명예스럽게 살았습니다. 저자는 청중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4장 3절에서 그는 여전히 불순한 행위와 불순한 욕망과 술 취함과 잔치와 향락과 추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비기독교인 이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타락한 삶의 홍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웃의 적개심과 개종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욕망은 이웃의 죄악된 행위로부터 스스로 분리되기 위해 실제로 잘한 기독교 개종자들로부터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종자를 멸시하는 비기독교인 이웃들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개종자들이 순종한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영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신 전체를 통해 외부인, 즉 비기독교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자, 궁극적으로 일탈한 자, 선에서 벗어난 자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탈자들, 즉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어떤 수치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비롯되며, 만일 그들이 그것에 굴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비기독교인 이웃의 생활 방식으로 남아 있는 개종자의 이전 생활 방식은 어둠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는 고대 세계에서는 표준적인 이미지이지만 현대 세계에서도 지속되는 무지와 부족함의 이미지입니다. 지식은 진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허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개종자들에게 자신들의 과거와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의 무가치함뿐 아니라 이웃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바람직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지식에 기초하기보다는 무지에서 일어난 자신의 열정과 욕망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치스럽게 하여 덜 명예롭고 제한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난은 저자가 말했듯이 단지 중상모략, 근거 없는 부정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기독교 개종자의 삶의 고귀함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저자는 또한 여기 이 수치와 치욕의 도가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재판을 받고 부정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실제로 비기독교인입니다.

이 전략을 위해 나는 먼저 서기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번성했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매우 유용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을 다스리는 자가 '내가 당신을 불경건하고 불경한 자로 여긴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사람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삼단논법을 판단하고 내가 그 진술을 판단한다고 선언했다면, 만약 낮이면 빛이 있고, 거짓이라면, 그 삼단논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에서 누가 재판을 받고 있나요? 누가 정죄받았는가? 삼단논법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인가?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할 때 성인이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의 서신 2장에서 에픽테토스와 비슷한 종류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삼단논법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받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모퉁잇돌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는가? 베드로는 칠십인역 헬라어 번역판 시편 118편과 117편의 구약성서의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를

인간에게는 무가치한 것으로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돌? 아니요, 하지만 돌을 거부하는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택하셨으나 건축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돌의 가치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돌을 제거해야 할 버려진 블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본문은 인간, 건축자, 비기독교인 외부인의 평가가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권위 있는 진술이 됩니다. 저자가 엮은 또 다른 본문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보라 내가 택하고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그것에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째 본문을 혼합함으로써 저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돌,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사실상 모퉁잇돌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유일한 중요한 것임을 식별합니다. 저자는 청중을 부르고, 청중을 부르며,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존경받는 이상과 미덕의 구현에 기초한 건전한 자존심을 발전시킴으로써 외부인에 의해 수치심과 수치심을 극복하도록 요청합니다. 기독교 문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베드로전서의 문단 바로 다음에 저자는 정욕을 다스리고 덕행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라는 친숙한 윤리적 주제를 사용하여 청중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지키라.” 열정의 지배라는 주제는 스토아학파의 윤리적 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담론에서 매우 흔했습니다.

미덕에 이르는 길, 즉 명예롭게 사는 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악으로 몰아가고 미덕에 대한 헌신을

무력화시키는 내면의 갈망, 충동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이 주제를 기독교인들이 실제로는 문화의 가장 높은 소망, 즉 문화의 가장 높은 이상을 성취하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돕기 위해 이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록 외부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불필요한 처벌 원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220년 이후의 이 구절에서 저자는 비기독교인 주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종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 비기독교인 주인이 노예에게 유일신에 대한 충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종은 하느님 앞에서 순수한 양심을 유지하겠다는 헌신의 결과로 어떤 형태의 타락을 견딜 수 있고 어떤 형벌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하는 일은 사실상 그 노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그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가장 적은 사람인 노예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인이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 대한 평가를 공식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기독교 가치관과 관행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기독교 노예를 비하하는 것을 삼가한다면, 그 주인은 베드로전서 2:20의 언어를 사용하여 선하고 온유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기독교 가치관과 관행에 대한 헌신 때문에 기독교 노예에게 수치와 고통을 가한다면, 주인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질문의 변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예인가, 주인인가? 저자인 베드로전서는 이 경우 주인이 종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처벌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사람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선을 추구한다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사실은 일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열광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자가 비기독교인들이 인간 행동에 대한 합리적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즉 기독교 개종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일탈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정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성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생활 방식의 변화에 반응하는 이웃에게 뭔가 결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의 목회서신 전반에 걸쳐 청중들에게 수치심, 비난 또는 기타 사회적 제재가 정당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찌르는 것, 무거운 것, 수치심을 부과하는 사회적 힘. 베드로전서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스-로마 철학 문헌에서 발견한 내용을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세기 철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첫 강의에서 접한 세네카의 글은 『현자의 불변성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에 쓰여 있습니다. Stoics와 Epicureans를 언급하는 두 학교 모두 부상을 경멸하고 부상의 그림자와 제안이 모욕임을 촉구합니다. 상처와 모욕을 경멸하는 현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분별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모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이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얼굴을 붉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았듯이, 저자는 그리스도인 청중들에게 매우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수치심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명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편지 전반에 걸쳐 우리는 베드로가 수치심의 경험을 더 쉽게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의 경험 자체를 명예를 얻기 위한 장소, 즉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바꾸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한 가지 전략은 수신자들이 겪는 다양한 시련을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과 하느님에 대한 헌신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6-7절에서 발견하고, 나중에 4장 1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의 가치를 입증하시고, 그들의 덕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프레이밍 장치. 비용이 들 때 당신은 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명예로운 일에 대한 당신의 헌신이 진실함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웃의 비난과 거절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인용하면서 신자들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4절입니다. 둘째, 저자는 사회의 소외된 존재를 뉴노멀(New Normal)로 정의합니다. 그는 소외된 경험이 그리스도인 개종자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저자는 개종자들이 직면한 저항과 반대 때문에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이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은 일탈자 취급을 받는 경험을 정상화하는 데 다시 한 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개종자들의 새로운 표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신, 즉 예수님의 패턴 자체는 거절과 조롱, 고통을 견디며 명예를 얻는 패턴이었습니다.

저자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 뒤에 따르는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고 기록합니다 . 그러므로 예수의 경험은 사회의 일탈 통제 기술에 복종하는 제자들의 수치심 경험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예수께서 궁극적인 타락을 겪으신 것처럼 지속적인 인내가 명예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거절, 중상, 범죄자로서의 정죄,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후 영광에 이르는 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의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속적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 그러므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은 일과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해 단번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

또는 더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4장에서 저자는 구체화되어야 할 새로운 규범으로서 인간의 고통의 경험으로서의 예수 체험에 호소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치고 육체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끝을 제자의 이야기의 끝과 명예로운 끝으로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1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기뻐하라. 극도로 높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본은 이 뒤집힌 세상을 거쳐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사실상 결국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회심한 자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으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속적인 명예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확립하기 위한 템플릿, 심지어 그 속에서도 저자는 개종자들이 잠재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제 어려움과 실제 이주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분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집에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고향 도시에서도 현재 외국인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통해 그는 그들이 실제로 이주했다는 느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단순히 거주하는 외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선택된 거주 외국인입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택함을 받은 거주하는 외국인들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러한 정체성은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성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적으로 앗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면서 흩어짐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바빌로니아가 남쪽 유다 왕국을 정복할 것을

예상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신자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규화 렌즈를 제공합니다.

쫓겨났다는 느낌, 이제 고향에서도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느낌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백성이 수세기 전에 견뎌야 했던 정체성의 일종의 재생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호스트 사회 내에서의 이동은 하나님의 선민,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모아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저자는 또한 신자들에게 그들이 견디고 있는 저항과 손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현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여전히 제게는 무뚝뚝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이걸 내가 한 일에 대한 처벌인가요? 그것은 고대 세계 사람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신 때문이거나 유대 문화에서는 한 분의 신이 당신을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이것이 청중의 경험을 해석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청중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여러분이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는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다. 보통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불쾌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받겠지만, 이제는 당신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부끄러움을 피하는 것, 불쾌한 경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께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맡기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청중들에게 비록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너무 흠어졌기 때문에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집이라는 자리를 잃었고 아직 즐길 수 있을 만큼 영원한 집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기시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비록 이것이 불쾌하더라도 아주 좋은 이유로 옛 생활을 버렸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편지 초반부에서 베드로는 쓸데없는 생활 방식, 즉 현재의 고통의 원인인 분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으나 그들은 아주 좋은 이유로 그 헛된 생활 방식을 버렸다고 썼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에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이웃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견디는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개종자들과 하나님 자신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하심으로 너희에게 특권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인내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증해 줍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시련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수치심, 고통, 소외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자가 말했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대가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대가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종자는 실제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우정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눈앞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는 그녀의 이웃 중. 저자는 4장

16절에서 이러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개종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말고,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하지도 말고, 시스템의 반대하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신의 측면을 거부하도록 권장됩니다. , 외부 세계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넷째, 저자는 청자의 삶을 둘러싼 영적 전쟁의 우주적 틀, 즉 또 다른 해석적 배경에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청자의 투쟁을 설정한다. 저자는 목회서한 마지막 부분에서 “근신하라 조심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그를 대적하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려는 비기독교인 이웃의 시도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에서 그들을 실격시키려는 우주적 원수의 시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을 명예로운 승리의 길로 여기도록 재배치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주적,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사람들이 도전과 재포스팅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회당장이 안식일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에 대한 다른 도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문화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어 도전에 맞서고 대중의 눈에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게시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방관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시합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개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게시물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명예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겠지만, 외부 세계가 그들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모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모범은 저자의 성찰의 출발점이다.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 욕을 받으시되 더 이상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3장 9절을 인용하여 해를 해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베풀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너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저자는 결국 선을 행하고 악이 닦쳤을 때 선을 갚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이기고 이웃이 그들에게 던지는 비난을 뒤집을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합니다. , 존경하는, 미안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따라서 저자는 이런 종류의 재포스팅을 통해,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비방을 인용하고 침묵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13~3:15에서 읽음). 수치심에 굴복하거나 적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게시하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헌신과 실천, 예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저자는 그들이 왜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포기하지 않고 개종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개종자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희망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서 저자는 조만간 기독교 집단의 고결한 행위가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지금 기독교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의 지도자들이 외부인의 수치심이나 거부로부터 그룹 구성원을 보호하고 소수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인내와 헌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치심과 거부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그룹 리더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그룹 구성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명예를 정말로 중요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소수 문화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소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얻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주제였습니다.

기독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부인, 즉 하나님에 대해 어둠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의견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과 사람들의 법정에서 더 큰 명예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진 사람들, 즉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목회 말씀 전체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견해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서계신 분에게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개종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명백히 불순종하는 기독교 집단의 외부인에 비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고 있는 시험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그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체질은 훨씬 더 가혹하고 그 결과는 훨씬 더 비참합니다. 저자는 청중들에게 명예가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확신시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인용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개종자의 궁극적인 옹호가 확실하다는 증거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저자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보배롭게 된 이가 존귀함과 같이 믿는 너희에게 있느니라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명예는 개종자들에게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현재 누리고 있는 영예에 대해 길게 설명합니다. 그는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과 썩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 끝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1장 23절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 거듭남의 유산은 1장 4절과 5절을 인용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니 곧 살아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가치, 곧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으로 입증된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인용하자면, 흠 없고 흠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제자들을 헛된 삶에서 그들의 전생에서 도로 사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입니다. 방법.

우연히도 이 이미지는 개종자들을 그들의 과거 생활, 즉 이웃들이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매우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예수, 말하자면 흠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웃의 수치심을 주는 책략에 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모든 선한 일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종자들이 산 돌이신 예수님 주위에 모일 때, 그들은 선택받은 귀중한 모퉁잇돌을 기리기 위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주위에 영적인 집으로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봉사와 접근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높은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같은 장 후반부인 2장 9절에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수많은 존칭을 붙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곳, 즉 비기독교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에 뿌리를 둔 자존감과 도덕적 용기의 기초인 고귀함의 새로운 경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웃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 모든 명예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웃, 즉 비기독교인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고 단언하는 모든 영예를 잃게 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2장 10절에서 그들이 부끄러운 곳, 저자가 묘사할 수 있는 어둠, 사람이 아닌 신분, 헛된 생활 방식, 정욕을 따르는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지 속에서 방탕의 홍수 속에서 이웃과 함께 달리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큰 영예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겨갔으며, 아마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삶의 실제 매개 변수에 대해 깨달음을 받았다는 느낌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식별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응답을 통한 정화의 삶, 사람의 미덕을 더럽히는 육신의 정욕을 삼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방탕의 홍수에 빠지기보다 이제는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그들이 남긴 삶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낸다 . 그러므로 이것이 개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오래되고 덜 명예로운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이웃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예가 사회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명예로운지에 대한 다른 정의를 오랫동안 혼자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가치를 나에게 반영하고 내가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는 정도까지 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그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적 매트릭스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 자체는 개인이 이전 생활 방식과 이전 지원 네트워크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확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청중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이 없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제 자매애를 서로 나타내며 3장 8절에서는 화합과

연합을 구하고 4장 8절에서는 아낌없는 상호 지원과 대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11절, 그리고 5장 3절과 6절에서 연대와 조화를 키우는 온유한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룹 내의 관계적 유대가 관계 자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자들의 명예를 확인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저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동거할 때에 아내를 약한 성별로 여기고, 그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번역에서 종종 도살당하는 텍스트입니다. 동기와 행동의 결합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어 표현과 매우 유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저자는 아내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당신과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여성을 쌍의 더 취약한 구성원으로 보는 고대의 고정관념과 일종의 고려가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영광의 공동 상속자로 식별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딱 들어맞습니다.

즉, 고대 세계에서 남편과 아내와 같은 위계적 규칙이 존재하는 경향보다, 기록상으로는 훨씬 더 평등한 관계인, 집안의 형제자매 관계에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명예와 수치심의 언어에 대한 우리의 고찰과 베드로전서의 청중,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직면한 역동성, 그리고 그들이 상황의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베드로가 사용하는 종류의 수사적 전략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세계 교회의 사례를 고려할 때 다소 긴급해 보이는 한 가지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복습을 통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청중들이 자신의 헌신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헌신을 깨뜨리려는 외부 압력에 직면하여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한 새로운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개종으로 이어진 통찰력을 배반합니다. 저자는 이웃의 반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덕적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징적, 사회적 자원을 정의하도록 돕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전략을 구현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직면하는 유사한 사회적 역동성을 발견하는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 가족의 상당 부분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많은 이슬람 국가, 이전에는 소련과 같은 비서구 국가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비난, 차별, 특권의 상실, 생계 수단의 상실, 심지어 투옥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배적이고 다수의 문화는 기독교인을 교정하기 위해 모든 일탈 통제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제한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는 이러한 환경 중 다수가 그 자체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가 그들에게 한 연설은 문화적으로 매우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러한 환경 밖에서 이 삶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1서는 우리가 박해받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우리의 자매와 형제들이 고귀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본문은 교회의 현실을 인내를 더욱 예리하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매트릭스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심각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와 형제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우리는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통해 이를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주요 부양자가 투옥되거나 해임될 때 경제 제재가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외교를 통해 종교적 박해를 종식시킬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접촉하여 그들이 이전 생활 방식과 그 교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자신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정부의 괴롭힘에 맞서 이전 선택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그들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직면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는지 알려주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 그리고 그들의 존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행동하고 행동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와 형제들의 명예를 더 큰 소리로, 더 의미 있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읽기 1 명예와 수치에 조율된 베드로입니다.